

“세계선수권서 명예회복”

쇼트트랙 대표팀 불가리아 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아쉬움을 모두 뒤로 한 채 세계 정상의 실력을 다시 입증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 등 남녀 대표팀 10명은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19~20일, 불가리아 소피아)와 2010 ISU 세계 쇼트트랙 팀선수권대회(27~28일, 이탈리아 보르고오)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불가리아로 떠났다.

이번 시즌 쇼트트랙 대표팀은 기쁨과 아쉬움, 희망을 동시에 남겼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정수가 남자 1000m와 1500m 2관왕에 오르는 등 메달 3개를 따내며 안현수(성남시청)의 뒤를 잇는 에이스 역할을 해 ‘매달벌’의 자존심을 지켰고, 악체로 지목됐던 여자 대표팀에서도 막내인 이은별(연수여고)과 박승희(광문고)가 메달을 목에 걸며 희망을 남겼다.

하지만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선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불가리아로 출국하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국민 금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이 서로 경쟁을 펼치다 충돌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놓치고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어울한 심판 판정 때문에 1위로 골인하고도 실격당하는 등 아쉬움도 그만큼 컸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올림픽의 흥분을 뒤로 하고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집중하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2연패를 노리며, 여자 대표팀은 중국과 대결에서 승리해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역시 ‘농심배 수호신’

이창호 中에 막판 3연승

한국팀 ‘역전 우승’ 견인

‘돌부처’ 이창호의 심통력이 불가능해 보이던 한국의 우승을 현실로 만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 낸 모습은 5년 전 막판 5연승으로 대역전 우승을 이끌어냈던 ‘상하이 대첩’ 그대로였다.

이창호의 9단이 12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내 특설대국실에서 열린 제1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비둘기강전 최종국에서 중국의 주장 창하오 9단을 맞아 흑으로 231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창호의 극적인 3연승으로 한국은 1~6회까지 6연패 등 농심배 9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바둑 최강국의 지위를 이어갔다.

특히 이창호는 한국의 9번 우승 중 8차례 주장으로 나서 우승을 결정지며 ‘농심배 수호신’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또한 이 9단은 오늘 승리로 농심배 본선에서만 19승째(2회)를 올리며 90.4%라는 경이적인 승률을 기록해냈다. /연합뉴스

정원용 생애 첫 백두장사

정양장사씨름 김상중 꺾어

정원용(기장군청)이 2010 청양장사씨름 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백두장사 꽂가미를 뒤졌다.

정원용은 14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째날 백두장사(무제한급) 결승전(5전3선승제)에서 자신의 몸무게보다 50kg이 더 나가는 김상중(마산씨름단)을 맞아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2005년 기장군청에 입단했지만 5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정원용은 거구 김상중을 상대로 재치있는 경기를 펼치며 올 시즌 첫 백두장사에 이름을 올렸다.

◇백두장사 결정전 최종순위 ▲정원용(기장군청) ▲1품 = 김상중(마산씨름단) ▲2품 = 탕다솜(연수여고) ▲3품 = 황규연(현대삼호중공업) /연합뉴스

“나도 장미란·사재혁처럼...” 19~26일 일반인 역도대회 첫선

엘리트 선수들의 전유물인 역도대회에 드디어 일반인도 출전하게 됐다.

대한역도연맹은 오는 19일부터 26일 평택시 이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춘계대회와 주니어대회 사이에 동호인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20일 마지막 경기와 21일 정오 경기장을 일반인들을 위한 대회로 배정해

엘리트 선수들과 같은 플랫폼에 오르도록 준비했다. 전 체급을 통합한 무제한급 방식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가장 무거운 중량을 드는 선수에게 금·은·동메달을 주기로 했다.

출전자 33명은 모두 남성이며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서 실업팀이나 대학의 전용 연습장을 빌려 작년 말

부터 훈련해왔다. 연맹은 훈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골라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역도 기술을 배우는 동호인들은 작년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장미란과 안용권, 사재혁, 김선종 등이 선전하면서 생겨났다. /연합뉴스

아마추어 김현수 8위…서희경 10위

호주오픈, 대만 청야니 우승

아마추어 선수인 김현수(18·부산에문여고)가 유럽여자프로골프 한다호주오픈에서 텁100에 들었다.

김현수는 14일 호주 멜버른의 커먼웰스 골프장(파73·6102m)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끓어 1언더파 72타를 쳤다.

합계 1언더파 291타를 쳐낸 김현수는 전날 공동 11위에서 8위로 뛰어오르면서 10

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4관왕 서희경(24·하이트)은 이날 이븐파를 치며 공동 10위(1오버파 293타)에 만족해야 했으며 지난주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했던 이보미(22·하이마트)는 공동 16위(3오버파 295타)에 머물렀다.

우승컵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대만의 청야니에게 돌아갔다. 우승컵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대만의 청야니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양용은 ‘중위권’

PGA CA챔피언십 3R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과 양용은(38)

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CA챔피언십

셋째 날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칼골프장 블루TPC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끓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중간합계 1언더파 215타를 적어낸 앤서니 김은 전날 공동 36위에서 공동 30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양용은은 중간합계 4오버파 220타로 공동 56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국 휠체어컬링 첫 승

페럴림픽 예선 2차전 스웨덴 꺾어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벤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첫 승을 올렸다.

한국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벤쿠버 페럴림픽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예선 풀리그 2차전에서 스웨덴을 8-4로 따돌렸다.

한국은 이로써 1승1패를 기록해 1차전 패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을 덜었다.

앞서 벌어진 미국과 풀리그 1차전에서 막판에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6-9로 역전패했었다.

1차전과는 달리 스웨덴과 2차전에는 후반에 오히려 집중력이 살아났다. 한국은 5파리

어드까지 3-4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6, 7, 8엔드에 1점도 주지 않고 대거 5점을 뽑아내 승부를 결정지었다. 출전선수는 김학성(42), 김명진(39), 박길우(43), 강미숙(42), 조양현(43)으로 모두 클럽팀인 원주 연세드림에 소속돼 있다.

한국은 오는 19일까지 일본,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상위 4개팀은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20일 메달을 두고 다룬다.

한국 아이스슬레이하키 대표팀은 세계최강 미국의 벽을 절감했다.

한국은 캐나다 벤쿠버 UBC 선더버드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 오리히어 집중력이 살아났다. 한국은 5파리

15일(월)

▲PGA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 FR (08 : 30·SBS골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광주일고 : 설악고>(09 : 50), <포천고 : 대전고>(12 : 20·KBSN SPORTS)

▲리틀야구 (16 : 00·MBCESPN)

▲여자 프로농구 <신한은행 : 금호생명> (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3차전 <삼성 : KCC>(18 : 50·SBS스포츠·MBCE-SPN) /연합뉴스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술/부형/경혈경락/중의임상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해외시용가능)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증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해외시용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 대졸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 3년
- 입학 :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골상학/중서의결합한상/중약학
- * 치료 및 치료설명은 기꺼이 원의원이나 개인으로서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온성 채팅의 지존!

광주, 전남 최고! 성인 커뮤니티의 역사

19년 전통의 최고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1588-3533 ·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 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핫폰

공장매매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대 지
6,345㎡(1,920평)

건 물
1,685㎡(510평)

전 기
계약전력 200㎾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